

茶한잔에 中正 얻으면 곧 '해탈'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차



부처님이 득도후 녹아원에서 설법하는 장면



명문 비구를 간호하는 부처님. 옆에 놓인 뒤주기 재미있다



외도의 우파카기 부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토속적 정서로 재현한 부처님 일대기 60장면

인형작가 김영철씨 전시회 준비

마치 이웃집 아저씨를 보는 듯한 토속적인 얼굴.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한 살아있는 표정. 상투를 들고 한복을 입은 우파카기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옆에는 장승 한쌍이 바라보고 있고...

디오라마(소형으로 축소하여 실경(實景)을 보여주는 것)로 재현한 부처님일대기가 꾸며지고 있다. 김영철씨(한국디오라마연구소장·46)가 마야부인의 태몽에서부터 부처님의 열반까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60장면으로 나누어 인형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 김씨는 한국적인 풍

초가·장승등 한국미 물씬

당시 상황 생생... 학습효과 높아

토에 초가집 기와집과 한복, 짚신, 뒤주, 장승 등을 등장시키고 인형의 얼굴도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부의 얼굴을 차용해 친근한 모습의 부처님과 제자들을 보여준다.

원래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 인형전을 열 계획이었는데 협찬하기로 한 모 방송사가 재정난으로 지원을 못해 할 수 없이 연기했다. "박물관에 가면 거의가 디오라마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잖아요.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좋아하고 학습효과도 높습니다. 부처님일대기를 이렇게 디오라마로 해 놓으면 아마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것이 빠를 것입니다."

인형제작과 소품은 물론이거니와 이틀에 없는 우레탄 호마카 같은 건축자재를 쓰고 또 조금만 표정이 잘못돼도 버려야 하는 등 제작비가 수천원밖에 드는데 지비로 하더라도 일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김영철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잊혀진 옛날이'란 제목으로 제기차기, 천렵, 까막잡기놀이, 평따먹기 등 우리의 옛날이 인형전을 재현해 큰 호응을 받았다. 자신을 얻은 김씨는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부처님일대기를 시작했는데 재원마련과 설치할 장소 구하기가 난감해 불교계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02)696-2660, 647-6835

"누구든지 불교에 대해 알려면 부처님의 일대기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일대기 인형을 심혈을 기울여 평생의 대작으로 만들어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꼭 대중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경숙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신록의 계절 5월, 경성과 정라를 잇는 지리산 자락 하동땅에 싱그럽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 쌍계사 '차 축제와 제다현장'을 찾아 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창건주인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윽하고 은은한 차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체험기행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다선일미의 세계를 찾아서' '쌍계사 차 축제, 제다현장'

- 출발: 5월16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4만원(점심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주관: 혜초여행사

차일을 따는데 그 묘(妙)를 다하고

만드는데 그 정(情)을 다하고
물은 진수(眞水)를 얻고
끓임에 있어서 중정(中正)을 얻으면

체(體)와 신(神)이 서로 어울려
건설함과 신령함이 어우러진다
이에 이르러 다도(茶道)는 다하였
다고 할 것이다.

...초의선사의 <동다송>에서

불교에서 차는 깨달음의 본질을 암시하는 초월적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언어적 표현을 초월한 경지와 그 이후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의 방법을 차와 함께 이야기한다. 부처와 내가 하나되는 삶, 자연과 내가, 차와 선이 일어 되는 삶을 살았던 선사들의 삶이 '다선일어(茶禪一如)'의 사상으로 녹아내린다.

신라 신문왕의 아들 보현대자는 오대산 신성굴에서 50년동안 문수보살에게 차를 달여 바치고 수진(修眞)하였더니, 결국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차를 얻어 마시는 보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석굴암 본존불의 왼쪽 벽에 새겨져 있는 보현보살이 오른손에 차

잔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차를 마시는 일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과정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승려가 차를 마시면 부처가 된다는 생각은 백성들의 민요에서도 나타난다. 화엄사에 있는 효대(孝臺)는 창건주인 연기조사가 석동아래 한쪽 무릎을 꿇고 차잔을 손에 든 모습을 하고 있다. 부처님에게 차공양을 올리며, 어머니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차는 머리와 눈, 귀를 받게 해주고 잠을 적게 해주며, 피로를 풀어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아홉가지 큰 덕을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뿐만 아니라 차매를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례

불가의 다례의식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부처님이나 신명에게 올리는 봉헌다례, 입적한 승려나 불자의 영혼을 위한 제사다례, 혼자 혹은 손님 접대시의 일상다례, 그리고 사찰 내의 크고 작은 행사시에



차공양을 올리는 석굴암(국보 29호) 보현보살



차를 공양하며 어머니를 봉양하는 연기조사의 설화가 스며있는 화엄사 효대

다공양하는 의례도, 부처님에게 차를 공양하며 현재의 복을 기원하는 중흥은 고려의 왕실에서 조선 민가에까지 폭넓게 퍼지며 일반의 차례(茶禮)로 자리잡았다.

다책(茶冊)

초의선사(1786~1866)의 <다선전> <동다송>과 육우(726~804)의 <다경>

은 차를 말하면서 배놓을 수 없는 교과서. <다선전>은 차의 재취에서부터 차를 만드는 법, 차의 품질 식별, 차를 보관하는 법, 차 마시는 법, 다구, 차잔, 차의 위생관리 등 22개의 항목에 걸쳐 차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다. <동다송>은 한국 다도에 있어 불후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명저. 오늘날에도 차와 선을 연

"차마시면 부처된다" 설화 전래

피로 풀고 눈귀밝게 하는 9덕 지너 쌍계사·선암사 등 차재배지 유명

스님들이 절도 있게 차를 마시는 집 호대다리가 있다.

봉헌다례에는 예배드릴 때와 불공할 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예배 때에는 반드시 다례(茶禮)를 받들었는데 증명(證明)다례와 삼보(三寶)다례, 영산법회다례가 있다. 대개 사미니 스님이 차를 들고 오면 다례를 느리게 노래 부르고, 차를 부처님전에 놓는다. 불공다례는 현재의 복과 소원을 빌기 위해 부처님에게



차생활의 멋진 바쁜 마음과 절과 정성에서 피어나 주조되어 이룬다



10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 꽃과 열매가 열리고 나서 3개월쯤 지나면 새 손이 뜯는다. 차는 새 손을 따는 일부터 정성을 들여야 한다



조선시대 다시반, 차와 함께 다식을 곁들이면 일마다



고려시대 청자 삼각국화문 탁자, 사원과 공중에서 한차례때 사용했다

다인(茶人)

가장 오래된 다선작품의 주인공인 신라 김지장스님은 우리 차문화의 첫발을 연 다인이다. 지장스님은 금지차를 중국으로 가져가 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의 다인으로는 원효대사와 최치원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귀족들 사이에 차가 유행했고, 특히 사원에서는 차를 즐겨 마셨다. 대각국사의

인물이 많았다. 임춘과 김극기 이규보 이연중 이인로 이재현 이승인 등은 다시를 주고 받으며 스님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차 끓이는 소리를 즐기고 차를 마시며 '다선일어'의 다생활을 했다. 조선시대 다인으로는 서거정 김중지 남효은 정희재 김명희 정약



초의스님

자(禪學者)의 면모를 동시에 간직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다산과 해장선사의 차로 맺은 인연은 이후 추사와 초의선사로 이어진다.

차를 말하면서 배놓아서는 안될 인물은 차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가 이르렀다는 조선 후기 대선사이자 한국 다도의 중흥자인 초의스님. 스님의 삶은 다선이요, 스님의 시는 다사이니 이른바 선다가 되고 다시 이야기 된다. 근세의 최범술스님은 <한국의 다도>를 저술하며 차와 맥을 이었다.

- 지장스님 - 중국에 금지차 보급
- 의천스님 - 신선 즐기듯 차음미
- 초의스님 - 한국다도의 중흥조

울 신외 김정희 이상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다산 정약은 초의선사로부터 차를 배워 차와 차시에 대한 40여권의 글을 남겼으며, 도로 차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추사 김정희는 예술가와 화자로서 뿐만 아니라 다인의 풍류와 선학

구하는 이들에게 강로수와도 같은 없어서는 안될 지침서다. 모두 18송(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다송>은 신이(神異)한 전설을 중심으로 차의 효능, 생산지에 따른 차의 이름과 품질, 다도(茶道)의 구체적인 방법과 초의선사 자신의 다선삼매(茶禪三昧)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차의 성인이라 불리는 당나라 육우도 <다경>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적고 있다. 차의 고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차일을 따는 것에서부터 만드는 일, 불과 물에 관한 일, 차를 보관하는 일 등 차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선과 차의 오묘한 정신을 조화시키고 있다.

연동회·팔관회

신라와 고려시대에 열렸던 팔관회는 불교의 팔관제(八關戒) 형식을 띤 국가적 행사로 왕과 신하들이 서로 권하며 차를 마시는 팔관제 다례행사가 열렸다. 소회(하루전)에는 차와 술도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를 했으며, 대회(앞날)에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꽃을 받아 꽃고 임금에게 차를 올리면서 나라의 경안을 기원했다.

연동회는 고려 불교와 차와 국가정책이 한데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 행사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며 부처님께 일반 백성들이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했다. 왕궁과 마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등불을 밝히고 임금을 비롯해 민중전체가 술과 음악 가무로 일심동체하여 즐기며 차를 마시는 민족의 대축제였다.

꼭따가(喫茶去)

당나라 조주 종심(778~897)선사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차를 권해 조주청다(趙州淸茶)의 고사를 남겼다. 조주선사는 처음 와서 도를 묻는 남자에게도, 또 몇 번이고 오는 남자가 도를 물어도 "꼭따가(차나 마시



송차와 예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선말기 작품 '배자(禮字)'와 '다(茶)'

게"라고 답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차나 마시고 가라 하느냐고 묻는 원주에게도 "꼭따가"라고 답했다.

일상에서 차를 마시는 일처럼 바른 경상(平常)에 도가 있음을 깨우쳐 주는 선가의 유명한 공안.

차로 유명한 절

쌍계사는 차 시배지로 유명하다. 사찰 입구에 서 있는 바위에 새겨진 '쌍계(雙溪)와 '김(石)'이라 새겨진 큰 바위를 지나면 신라 때 대림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으로 심은 것을 기념해 세운 차 시배비와 함께 차밭이 펼쳐져 있다.

송나라 경내에는 향나무림이 우거져 있는데 송나라 스님들은 이 향나무에서 자란 차나무로 죽초차를 만들어 마시고 있으며, 다술사도 사할 뒤에 아쟁 차나무밭이 있어 차를 만들어 마신다. 영광 불갑사 역시 아름다운 아쟁차밭을 가지고 있는데,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유의 정동 방식에 따라 작설차를 만들고 있다. 장성 백암사는 사찰 언저리 1만여평의 숲속에서 자라는 아쟁 차목에서 채취한 차잎으로 만든 백암차가 유명하며, 양산 풍도사는 뒷산의 아쟁 차나무에서 스님들이 손수 차일을 따서 만든 녹차가 일마다, 한국 전통차의 맥을 잇고 있는 다지(茶地)가 있는 울산 동축사는 사찰 앞쪽에 작은 차밭이 있어, 이곳에서 화후차를 만든다.

이밖에도 순천 선암사, 동해 대원사, 경주 분황사,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불회사 등이 차로 유명한 절이다.

한영우 기자

새로운 재테크로 각광 받는 불교신협예금
(신협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합니다.)

확정수익률
1개월 연 **20.0** %
비과세 (세금감안시 25.13% 효과)

불자님을 위한 은행 ————— 상담전화 051)633-9120
부산물교신협동조합

법원등 지정된 현대불교협 맞은편 2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834-20